

대한민국 산업을 이끈 영남, 첨단산업의 미래를 열다

- 한화·현대자동차·삼성·SK·두산·LG그룹, 차세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영남권 첨단산업에 총 312조원 투자
-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혁신거점 조성, 2GW AI 데이터센터 구축, 첨단로봇 초혁신벨트 조성 등을 통해 영남권을 첨단산업 선도거점으로 육성
-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정부는 7.3(금)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국민보고회에서는 영남권 투자 주요기업, 중앙·지방정부, 산업계,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주요 기업별 영남권 투자계획, ②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③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④주요 투자기업과 중앙·지방정부 간 투자양해각서(MOU)도 체결되었다.

<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개요 >

- 일시/장소 : 7.3(금) 15:00~15:45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대학교
- 참석자 :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지역 유관기관 등 200여명
 - 중앙정부 :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등
 - 지방정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산업계 :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삼성, SK그룹, 두산그룹, LG그룹 등
 - 지역 유관기관 : 경상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지역대학, 한국시로봇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 행사 주요내용 : ① 한화·현대차·삼성·SK 영남권 투자계획 발표(각 기업)
 ②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발표(재정경제부)
 ③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 발표(우주항공청)
 ④ 투자협약식

영남권은 구미산단 등 대한민국 산업화 불꽃을 가장 먼저 피워 올렸던 지역으로, 반도체·전자·우주 등 제조기반 위에 **피지컬 AI**가 융합되고 이를 뒷받침할 **차세대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도 자리 잡고 있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무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29(월) 개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행사**로, 영남권이 가진 잠재력을 꽃피울 주요 기업들의 총 **312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영남권을 첨단산업 미래 선도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① 기업별 투자계획 발표 주요 내용 >

먼저, 이날 국민보고회에서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삼성**, **SK그룹**은 영남권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화그룹**은 위성, 발사체, 우주·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약 **55조원**을 투자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미래 핵심부품 제조 클러스터, 제조 AI, 미래 항공·우주 등에 약 **42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은 약 **60조원**을 투자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 **차세대 배터리** 양산 라인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SK그룹**은 약 **140조원**(해외 사업자 제휴 및 자본 유치 등)을 투자해 영남권에 **2GW급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4개 기업 외에도 **두산그룹**은 소형모듈원전 (SMR), 대형원전, 가스·수소터빈 등에 약 **5.1조원**을 투자하고, **LG그룹**은 프리미엄 가전 연구개발, 반도체 기판 생산능력(개파) 증설, 디스플레이 신모델 투자 등에 약 **9.4조원**을 투자한다.

< ②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주요 내용 >

정부는 지방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기업들의 대규모 영남권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발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승자독식의 초경쟁 세계질서 속에서 진짜 승부처는 과포화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음을 강조하며, 지방 중심의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여 ‘**5극 3특 성장엔진**’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남을 포함한 지방을 중심으로 ①반도체, ②AI 데이터센터, ③피지컬 AI 등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도체는 수도권·충청권의 생산거점, 충청권의 패키징 거점, 영남권의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핵심거점 등 지역별 특화 생산망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영남권 2GW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 대규모 인프라망이 구축된다. 특히, 울산에는 전국 최초로 1GW 규모의 메가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AI는 제조·물류·국방 등 전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X+AI’를 신속 추진한다. 특히, 구미-포항-대구-창원을 잇는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를 중심으로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외에도 조선, 자동차, 우주항공·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국내 최고의 제조 역량을 가진 영남을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1위의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반도체는 부산 전력반도체 클러스터와 구미 소부장·방산 특화형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및 반도체 소부장 혁신거점으로 만든다. 울산 등 GW급 메가 AI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서버용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5년 내 로봇 글로벌 3강, 피지컬 AI 1강을 목표로 영남권 제조업의 피지컬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구미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액추에이터·센서 등 3대 핵심 로봇부품 전용 R&D를 신설한다. 조선, 자동차 등 피지컬 AI 기반 생산라인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 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SMR 전용 생산공장을 신축하고, 가스터빈 및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한다.

우주항공·방산 산업은 영남권의 미래 먹거리로 키워 나간다. 독자적 완제기 생산 역량, 수출 경쟁력, 우주경험과 인프라 등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앵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 창출, R&D, 정책금융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다. 먼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검토하는 등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5극 3특 성장엔진 보조금과 로봇 3대 핵심부품(로봇·액추에이터 등) 전용 R&D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시설·R&D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동남권 투자공사를 설립해 금융 투자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영남권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영남권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한다.

< ③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 주요 내용 >

정부는 우주항공산업을 기업과 지역이 선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뉴스페이스(New Space)로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부는 우주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로부터 안전망을 만들고 전환을 촉진하는 지원가로 변화하고,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조기 발사 등 핵심 정책과 사업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량 실현에는 기반이 될 지역거점이 필수적인 만큼, 주요 기업과 인프라가 집적한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특히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벨트 내 각 산업분야별 지역거점을 연결하는 중심지로 삼아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 ④ 투자협약식 주요 내용 >

이어서 개최된 투자협약식에는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삼성, SK그룹, 두산그룹, LG그룹 등 주요기업, 중앙부처(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및 지방정부(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참석한 가운데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업은 영남권 지역에 반도체, 전자, 우주항공, 피지컬 AI,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첨단산업에 약 312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또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영남권 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 (재경부) 영남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지원
- (과기부) 영남권 피지컬 AI 산업 발전,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 등
- (산업부)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지원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 (기획처) 영남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
- (지방정부) 법령·조례에 의한 인허가와 보조금 지급 등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10)
		담당자	사무관	임동현	(dhlim87@korea.kr)
	전략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미혜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조승호	(sho5825@korea.kr)
	산업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4530)
		담당자	사무관	하형철	(hhc33@korea.kr)
	서비스경제과	책임자	과 장	최동일	(044-215-4610)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qwer0318@korea.kr)
	지역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연	(044-215-4570)
		담당자	사무관	박주현	(zoopark@korea.kr)
	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장인주	(044-215-4630)
		담당자	사무관	김정진	(jeongjin11@korea.kr)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2zhyun@korea.kr)
	녹색전환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현영	(044-215-4581)
		담당자	사무관	안광선	(m14m14@korea.kr)
	전략수출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종현	(044-215-4970)
		담당자	사무관	서지현	(jjhopes@korea.kr)
	인공지능경제과	책임자	과 장	염철민	(044-215-4990)
담당자		사무관	정고운	(highlucky@korea.kr)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	책임자	과 장	현영목	(055-856-4210)
	우주항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새량	(lsr0803@korea.kr)